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2008년), pp. 131~157
연구논문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차 승 은** · 김 두 섭***

이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출산, 경제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 524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내들의 출신국적별로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 아내들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적응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도 취약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또한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도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에게는 출산이 우울감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아내들에게는 출산보다는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 문화정체성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에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구성이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방식이 출신국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혼인이주, 국제결혼, 출산, 경제활동, 우울증, 외국인 배우자

Ⅰ. 문제제기

일자리를 위해, 학업을 위해 혹은 결혼을 위해 우리 사회로 이주하게 된 경로는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오는 외국인의 증가는 주목할 부분이다. 국제결혼은 19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증가세를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BS0004).
**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haibin@hanmail.net, secha@umd.edu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duskim@hanyang.ac.kr

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IMF 이후 증가세가 약간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지난 2004년에 당해 전체 혼인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그 수치가 13.5%로 정점을 이룬 후 지금까지 그 비율이 10-1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2008).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대다수는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혼인이주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아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적응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문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질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관련연구들은 이주한 여성들이 가족,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한 심리적인 갈등과 긴장,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강유진, 1999;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김숙자, 1998; 김오남, 2006a, 2006b; 설동훈 외, 2005; 이혜경, 2005; 최연실 외, 2005; 홍기혜, 2000). 극히 최근에는 가족해체를 겪는 국제결혼 가족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두섭, 2006).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혼인이주의 여성의 삶을 국제결혼을 한 커플과 그들의 적응에 관심을 보여 왔다. 말하자면, 혼인이주 여성들의 삶을 외국인"신부","아내"의 관점에서 조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이들 외국인 아내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며, 그들이 자녀를 낳아 키우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그들의 건강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신부나 아내를 넘어서 아이를 낳은 부모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겪게 되는 경험을 탐색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현재 외국인 아내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 역시 드러나는 단편적인 정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우울에 초점을 두고, 혼인이주 여성들의 출산 및 경제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은 어떠한 수준인지, 과연 부모가 되고 직업을 갖는 것이 외국인 아내들이 우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의 효과는 지금까지 이주연구에서 많이 언급해 온 사회적 관계망이나 문화적 특성과 같은 맥락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중간변수들은 혼인이주 여성의 적응 과정에 출산과 경제활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제결혼의 수적 증가는 한국에 오게 되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이어 200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오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이루는 외국인 여성들의 출신국 및 인종이 다변화되면서, 출신국에 따라 개별 외국인 아내들이 보유하는 인적, 사회적 자원, 문화적 자원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아직은 관련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은 한국사회로 오는 혼인이주 여성의 문화적 특성, 혹은 출신국에 따라 여성들의 원가족 환경과 인적자본의 형성과정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출신 국가나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한국으로 온 시기와 계기,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결혼이 이루어진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일본인 아내들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통일교도들을 중심으로 혼인이주가 이루어졌다(김두섭, 2006; 양순미, 2006). 최근에는 일본인 유학생, 한국과 일본의 산업교류를 통해 혼인이주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석란, 2007). 그에 비해, 중국이나 베트남 아내들은 전문적인 결혼 알선업체를 거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김숙자, 1998;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설동훈・윤홍식, 2006; 양순미, 2006; 김정석, 2007; Kim, Kim, and Cha, 2008). 이러한 차이들은 이 사회에서 적응하는 방식 즉, 부모가 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사회적 경험, 그리고 그들의 건강에 반영되는 중요도에 이르기까지 국적별로 체계적인 차이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분석을 위해 일본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3개국 출신의 아내들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였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세 국가들로부터 온 아내들이 혼인 이주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 아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자원의 분배 구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었다.

Ⅱ. 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 논의

이 연구에서는 건강을 개인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로 살펴보았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과 부담이 누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WHO, 1960). 특히 정신건강은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격한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소소한 심리적인 반응까지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혼인이주로 한국에 오게 된 외국인 아내들이 일상생활이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압박과 내적갈등의 수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역할(social role)에 대한 관심은 역할을 수행을 통한 누적된 경험이 정신건강에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과거에는 역할긴장, 역할축적 논의를 통해 역할수행이 개인의 건강에 보상이냐 비용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와 쟁점이 제기되었다. 바넷과 그 동료들 (Barnett, Biener, and Baruch, 1987)에 따르면, 상당수 연구결과들이 역할수행으로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활동, 즉 직업역할과 관련해서는 부담과 긴장과 같은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가 더 많았다(한경혜・이정화・Ryff・Nadine・옥선화, 2002).

이러한 역할이론 논의를 비추어 볼 때, 혼인이주 여성이 자녀출산이나 경제활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주관련 연구들이나 생애과정 관점의 서구 연구들은 이주경험으로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의미가 개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Piper & Roces, 2003). 비교문화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생태학적 모형에서도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시, 거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정현주, 2007; 최연실 외, 2005). 한국의 혼인이주 여성에 대한 실증 연구들도 혼인이주 여성들의 부모역할이나 경제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결과들,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체계(지역사회, 학교, 종교단체, 문화체계)의 영향이 지대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역할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어떠한가에 따라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는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자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 역할의 수행은 사회적 연결망 확장, 혹은 축소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나타난다. 가족이나 직업역할을 점유하게 되면, 친구,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이 용이해 지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회적 역할(social role) 수행이 갖는 건강효과의 많은 부분이 이“사회적 관계 맺기”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Umberson, 1987; Williams, 2003). 실제로 출산과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자원의 특성들을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망 뿐아니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외국인 아내라

는 점에서 그들의 문화적 특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부분이다. 기존의 서구 연구들은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주목하였다. 한편에서는 인종, 문화적 특성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연구들은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민족적 특성을 버리고, 이주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동화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Hogg and Adams, 1990; Tajfel and Turner, 1986). 실증연구들은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제시해 왔고,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화정체성과 적응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역할 습득의 의미가 분석하게 된다.

2. 관련연구고찰

1)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과 출신국별 차이

사회적 역할수행이 개인의 삶의 질, 건강, 적응에 중요하다는 논의는 역할이론이나 정신건강 관련 연구 뿐 아니라 이주민을 다룬 기존의 이주(migration)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다.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함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Curran, Garip, Chung, and Kanchana, 2005; Dimaggio and Louch, 1998; Massey and Zenteno, 1999; Portes, 1995). 실제로 직업을 갖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확보하고 직업을 통해 관계망 형성이 유리하다. 경제적 자본의 축적으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도울 수 있다면, 실제로 이주민은 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노동이주 뿐 아니라 혼인이주의 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Piper, 2003; Stoloff, Glanville, and Bienenstock, 1999).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내 입지나 권력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수입으로 본국 가족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의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과 함께, 특히 혼인이주에서는 가족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혼인이주는 “결혼”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이주와는 차별적이다. 이 “가족의 형성”의 차원에서 출산과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개인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아내에게 있어서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대 간 이해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학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이주는 상당부분 한국의 혼인시장의 성비불균등에 의해 초래된 바가 크다(김두섭, 2006).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나이든 남성에게서 국제결혼의 사례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김두섭・이명진, 2007; Kim, 2007). 혼인이주 여성의 잠재된 출산력과 부모역할 수행은 한국의 취약계층 남성들과 외국인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주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과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김민정 외(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이면서 외국인인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부모역할도 상당한 긴장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지적하였다(김오남, 2006a; 왕한석, 2006; 이순형, 2006; 이혜경, 2005; 조영달, 2006; 한건수, 2006). 한국과 같이 교육열이 높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부모 노릇"은 아직 언어적, 문화적 적응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이주여성들에는 큰 부담이며,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부모역할을 잘 해내야 하다는 압박감이 자녀출산과 양육의 보람과 기쁨을 압도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되는 혼인이주 여성들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거의 일관되게 이주여성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관련연구들은 혼인이 이루어진 방식에서부터 결혼안정성 그리고 출산행태에 이르기까지 혼인이주 여성의 출신국과 인종에 따라 상이한 행태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김두섭・이명진, 2007; 최연실 외, 2006). 이러한 논의는 이들의 심리적인 적응자체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수행하는 역할의 의미와 그것이 건강함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김민정 외(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나 일어권에서 온 외국인 아내들은 높은 교육수준, 본국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취업, 자녀 교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아내들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적 자원과 혼인이주 여성의 정신건강과 출신국별 차이

역할수행과 함께 심리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원, 즉 관계망 특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아내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역사회나 속한 관계망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심리적인 안전망의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망, 관계망과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아는 사람의 수가 많고,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할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하며, 우울감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House et al., 1984, 1988; Williams, 2004). 즉, 사회적인 고립을 면하고 통합을 이룰 때 개인의 정신건강도 더 양호해지는 방향임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방인으로서 사회적 고립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외국인 아내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나 그 내용에서도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적 적응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한 설동훈・윤홍식(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국적별로 그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분포가 다소 상이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적응에서의 간극은 문화적인 동질감, 동일언어 사용, 사회에 대한 흡수력의 차이와 연관이 있었다. 한국의 일본, 베트남, 중국 여성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김두섭・김현수・차승은(2008)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인적, 사회적 자원의 보유, 접근성 측면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들에 비해 다소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과 남편 및 그 가족의 계층성이 이들의 사회적 자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과 사회적 자원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고 보다 복잡한 양상이다.

부모역할과 관계망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몇몇 질적 연구들은 부모역할은 친족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가족원의 탄생으로 본국과의 소통도 원활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 2006). 그런가 하면, 부모역할 수행이 언어문제, 교육문제가 결부되면서 외국인 아내들을 가족관계, 자녀관계로부터 소외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최연실・권용혁・김태성・우실하, 2007).

이처럼 사회적 자원은 그 자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사회적 역

할 수행과도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이주여성의 경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여성의 국적별로 보유하는 사회적 자원 및 관계망의 특성들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설동훈・윤홍식(2006)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 필리핀, 중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정도가 높았던 반면, 일본, 베트남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은 낮아 혼인이주 여성의 국적별로 사회관계망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일본, 베트남, 중국여성을 비교한 연구(Kim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일본여성들이 더 유리하였으며, 이는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심층면접에 바탕을 둔 김민정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동남아시아 여성인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 간에도 관계망의 활용이나 그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연결망 특성이나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혼인이주 여성의 출신 국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3) 문화정체성과 혼인이주여성의 우울

문화정체성은 이주민의 적응과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의 하나이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혼인이주 여성들이 그들의 문화적 특성들을 유지하는 것이 적응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인종적・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한국사회에 온전하게 동화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혼인이주 한 여성들의 문화적 지향성이나, 적응에서 이러한 문화정체성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고, 관련 논의도 드물다. 대부분 한정된 표본의 대상자나 국적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문화정체성, 문화적 이질감의 경험여부를 보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강유진, 1999; 김민정 외, 2006; 권복순・차보현, 2006; 박주희・정진경, 2007; 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 최연실 외, 2007; 홍기혜). 그런데, 질적 연구를 통해 문화적 적응유형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필리핀 아내들이 주연구대상이였던 박주희・정진경(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많은 시련과 갈등에 직면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일원이 되기 위해 요구하는 다양한 요소(요리와 언어, 관습과 문화)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연구자들은 외국인 아내들의 문화적응은 “통합”, “적극적 동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국인 되기”의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몇 몇 연구에서는 아내들이 소규모 모

임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작은 일본사회를 이어가는 것에 주목하였다(김석란, 2007). 이들의 그들은 이들의 연구는 소수에 대한 면접 자료이기는 하나, 이들 연구는 문화적응의 방식의 차이가 이들이 보유한 사회인구학적 배경,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본국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 혹은 한국사회 내에서 갖는 문화적 가치가 반영됨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07년 아시아 여성의 혼인이주와 적응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포스코청암재단과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일대일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1] 이 조사자료 중에서 한국남성과의 혼인이 초혼이며, 남편 역시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가 없었다고 밝힌 524명의 외국인 아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과 분석방법

혼인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6가지 주요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섯 가지 우울 증상은 각각 슬프고 우울함, 걱정·근심, 수면장애, 피로와 고단함, 희망없음, 무기력함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우울증상 항목들은 4점짜리 척도("전혀 없다", "없다", "가끔 있다", "항상 그렇

1)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행된 이 조사는 2007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의 약 한 달간 이루어졌다.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혼인이주 여성을 각 국가별로 200명, 총 600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본조사가 수행되었다. 혼인 이주 여성의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표집은 조사원이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한글교실,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나 문화원에서 이루어졌다. 소수는 동호회, 동아리 모임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정확한 주소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지만, 최소한 대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지는 한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4가지 형태로 각각 작성되었고, 각 응답자들이 편리한 언어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조사완료시점에서 총610부가 수거되었는데 이중에서 부실 응답의 사례를 제외한 600부에 대한 데이터 파일이 구축되었다.

다")로 측정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우울의 점수범위는 6-24점에 이른다. 척도가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12점을 넘게 되면,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항목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는 출산과 경제활동이다[2].출산여부는 혼인이주한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경험을 했는지 여부로 살펴보았다. 재혼가정의 경우 전 결혼에서 출산한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되도록 현재 결혼이 초혼인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대상을 선별하였다. 경제활동의 경우 시간제 일까지 포함하여 현재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여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원으로는 사회활동, 사회적 신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연결망을 살펴보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알고지내는 사람들과의 접촉빈도 등이 활용되어 왔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조사 응답자들이 외국인들이었고,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하는"잘 아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사회 관계망인지 배우자를 통한 관계망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계망의 크기에 해당하는 특성을 대체할만한 문항으로 사회활동의 수를 분석하였다. 사회활동은 관계망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여러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경우 공간적 지평이 그만큼 넓다고 볼 수 있다.[3] 교육 및 문화센터, 친목, 종교모임, 자원봉사활동, 자녀와 관련된 모임 등 6가지 영역에서의 사회활동 참여여부를 합산한 것을 활용하였다(없음=1, 있음=2, 해당없음과 무응답= 0, 점수범위 1-12). 사회적 신뢰란 정착한 사회나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수준을 의미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각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분석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점수범위 4-16).

문화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국에서 전통 음식을 즐긴다", "본국의 의례 등을 즐기거나 지키고자 한다", "전통 문양이나 그림, 장식물 등을 집안에 전시해 둔다"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언어적 측면 역시 이주민이 자신의 본국 문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다만, 이주민의 한국어 소통능력은 그들의 문화적 지향성과는 별개의 적응 차원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자녀

2) 분석대상자들이 모두 기혼이기 때문에, 배우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역할의 질이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역할 수행의 질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3) 공간은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일상생활이 조직되는 기초가 되며, 사회적 권력관계의 지형도를 드러내주는 단초가 된다(정현주, 2007). 따라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의 참가여부는 외국인 아내들의 이동, 다양한 사회활동의 참여 뿐 아니라 그들의 공간적 영역의 수준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개념에 조금 더 근접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활동의 빈도 보다는 어떤 사회활동과 모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그 합산한 점수를 비교하였다.

에게 자신의 본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언어를 가르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문항을 문화정체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포함시켰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의 응답을 합산하여 문화정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점수범위 0-4).

연령, 교육수준, 소득, 그리고 거주기간, 결혼만족도를 주요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소득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증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령효과는, 소득이나 교육보다는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체로 성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더 빈번하다는 결과가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혼인이주에 관한 연구들은 거주기간이 혼인이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Lee and Seol, 2008). 관련연구가 우울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것은 아니었지만, 거주기간이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주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고, 또한 이 연구에서 거주기간이 매우 상이한 세 국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거주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31.4세 이었다. 연령 분포는 일본인 아내들은 30-40대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베트남 아내들은 대부분 20대에 위치해 있다. 표에 아래쪽에 제시된 남편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들의 연령분포를 볼 때, 일본 아내와 중국 아내는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반면, 베트남 아내는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150만원 대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에서 국적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육수준을 보게 되면, 전체의 70%가 고졸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아내의 출신국별로 교육수준의 격차가 있었다. 총거주기간을 비교해 보면, 일본 아내들의 경우 한국에 온지 평균 10년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나며, 베트남 아내의 경우 거주기간이 아직 2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대체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간수준으로 답하였고, 여기에서도 출신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4)]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n=524)		일본 (n=186)		중국 (n=161)		베트남 (n=177)	
명목변수								
본인연령								
10대	4	(0.7)			1	(0.5)	3	(1.5)
20대	260	(43.3)	9	(4.5)	77	(38.5)	174	(87.0)
30대	223	(37.2)	94	(47.0)	110	(55.0)	19	(9.5)
40대 이상	113	(18.8)	97	(48.5)	12	(6.0)	4	(6.0)
교육수준								
초졸	33	(5.7)			6	(3.0)	27	(14.3)
중졸	146	(25.1)	1	(0.5)	50	(25.3)	95	(50.3)
고졸	242	(41.6)	93	(47.7)	101	(51.0)	48	(25.4)
전문대 이상	161	(27.7)	101	(51.8)	41	(20.7)	19	(10.1)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54	(10.0)	20	(10.2)	12	(6.4)	22	(14.1)
100-200만원 미만	255	(47.2)	81	(41.1)	87	(46.5)	87	(55.8)
200-300만원 미만	177	(32.8)	65	(33.0)	73	(39.0)	39	(25.0)
300만원 이상	54	(10.2)	31	(15.7)	15	(8.0)	8	(5.1)
연속변수								
총거주기간	66.9	(60.8)	122.9	(60.9)	56.3	(42.9)	21.8	(16.9)
남편의 연령	40.6	(5.7)	41.8	(5.5)	39.3	(6.0)	40.1	(3.6)
결혼만족도	3.0	(0.6)	2.9	(0.6)	2.9	(0.5)	3.1	(0.6)

주: 제시된 수치는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빈도와 퍼센트를 나타내며,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외국인 아내들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자원과 문화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 가까이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그보다는 낮아서 응답자의 20%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일본 아내들은 거의 85%에 해당하는 수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이 현재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 아내들은 응답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만이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인 아내들이 각각 25% 정도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에 비해 베트남 아내들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아서 7.3%에 머물렀다.

사회활동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아내들은 교육과 종교 활동 그리고 친

4) 이 자료의 응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두섭・김현수・차승은(2008)의 포스코 청암재단 연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사회적 역할, 자원, 문화정체성 차이

빈도(%)

	전체 (n=524)		일본 (n=186)		중국 (n=161)		베트남 (n=177)	
출산 여부								
자녀 있음	308	(58.8)	158	(84.9)	74	(46.0)	76	(42.9)
자녀 없음	216	(41.2)	28	(15.1)	87	(54.0)	101	(57.1)
경제활동 여부								
직업 있음	101	(19.3)	47	(25.3)	41	(25.5)	13	(7.3)
직업 없음	423	(80.7)	139	(74.7)	120	(74.5)	164	(92.7)
사회활동								
교육 및 문화원	164	(31.3)	49	(26.3)	43	(26.7)	71	(40.7)
자녀관련 모임	88	(16.8)	56	(30.1)	14	(8.7)	18	(10.2)
종교모임	201	(38.4)	160	(86.0)	28	(17.4)	13	(7.3)
친목회 및 친구모임	170	(32.4)	92	(49.5)	42	(26.1)	36	(20.3)
자원봉사	103	(19.7)	71	(38.2)	17	(10.6)	15	(8.5)
기타 활동	10	(1.9)	1	(0.5)	4	(2.5)	5	(2.8)
사회활동 점수 평균	6.36	(1.38)	7.30	(1.32)	5.89	(1.08)	5.87	(1.38)
사회적 신뢰 평균	10.7	(1.5)	11.4	(1.1)	10.7	(1.4)	10.0	(1.7)
문화정체성								
음식	356	(69.6)	132	(71.4)	122	(76.3)	105	(61.4)
의례	150	(29.2)	46	(25.1)	54	(33.8)	50	(29.2)
장식물	160	(31.8)	53	(29.1)	46	(29.3)	61	(37.2)
모국어 교육의도	172	(32.8)	108	(58.1)	28	(17.4)	36	(20.3)
문화정체성 평균	1.6	(1.1)	1.8	(1.1)	1.6	(1.2)	1.5	(1.2)

주: 사회활동 점수 사회적 신뢰점수, 그리고 문화정체성 점수에서만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구들과의 친목활동, 교육 및 문화원 활동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 아내들의 86.0%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종교 활동 이외에도 친구 모임, 봉사모임 등 사적인 모임과 대외적 활동에서도 다른 두 나라 아내들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아내들은 전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 적으며,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활동은 교육 및 문화센터 모임이었다. 이들의 공간은 가족과 교육기관, 문화원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아내들은 공간이동의 수준 베트남 아내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경우도 교육 및 문화원과 사적인 친구모임 그리고 종교모임 정도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사회적 신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16점의 점수분포를 갖는데, 이 연구의 전체 평균은 10.7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 아내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신뢰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베트남 아내들이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화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1.6 수준으로 4가지 정도 제시된 항목(음식, 명절, 장식물, 자국어 교육의향) 중에서 적어도 한개 항목 이상에 대해 수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본인 아내들은 2개 가까운 항목에서 문화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아내이나 베트남 아내는 자신의 문화적 지향성을 드러내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의향에 관한 질문이었다. 상당히 많은 일본인 아내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겠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아내이나 베트남 아내들은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중국 아내들은 대부분 조선족이기 때문에 모국어 교육은 이들에게 다소 애매한 항목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아내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이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을 뜻한다.

2. 우울 수준과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차이

〈표 3〉에는 응답자들의 우울 경험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각 우울항목은 4점짜리 척도로 측정되었고, 각 항목별로 평균 2점을 넘기게 되면, 응답자들이 각각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감 그리고 불안감 항목의 점수가 높아 이러한 증상을 응답자들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아내의 경우 특히 무기력감과 희망 없음, 피로감, 불안감의 정서를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

<표 3>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별 우울 증상의 차이

단위: 평균(표준편차)

	우울 증상						우울평균	F
	슬픔	불안	수면장애	피로	희망없음	무기력감		
일본	1.9	2.0	1.9	2.1	2.0	1.9	12.13(4.07)	5.27***
중국	2.1	2.0	2.0	2.2	1.9	2.0	12.33(4.71)	
베트남	2.1	2.2	2.1	2.3	2.3	2.5	13.61(4.28)	
전체	2.0	2.1	2.0	2.2	2.0	2.1	12.64(4.39)	

주: ***p<.01

었다. 이를 합산한 점수로 살펴보게 되면, 베트남 아내들은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 우울에서 점수가 13.61로 합산 점수가 12.13이나 12.33 으로 나타난 일본이나 중국아내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이를 통해 볼 때, 베트남 아내들이 나머지 두 국적의 아내들보다 우울증상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울경험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성향, 성격 성향, 사회 차별의 경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아내들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우울감이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 그리고 문화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사회적 역할 수행, 사회적 자원 그리고 문화정체성의 수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아내들의 출신국가별로 비교하였다.

3. 출산,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망 특성 및 문화정체성 수준에 따른 우울감 차이

〈표 4〉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출산 경험이 있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부모역할이나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 습득이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하는

<표 4> 사회적 역할, 자원, 문화정체성 및 국적별 우울 차이

평균(표준편차)

	전체 (n=524)		일본 (n=186)		중국 (n=161)		베트남 (n=177)	
출산여부								
자녀있음	11.98	(4.1)	11.31	(4.1)	11.97	(4.3)	12.77	(3.5)
자녀없음	13.64	(4.6)	13.00	(3.5)	13.21	(4.8)	14.29	(4.7)
경제활동 여부								
직업있음	11.16	(4.9)	11.95	(5.2)	10.01	(4.6)	12.40	(4.7)
직업없음	13.01	(4.1)	12.18	(3.6)	13.14	(4.4)	13.70	(4.2)
사회활동								
참석안함	12.55	(4.4)	11.77	(5.8)	12.14	(4.7)	13.15	(3.8)
1개 활동	12.57	(4.3)	13.28	(4.4)	11.62	(4.3)	12.81	(4.9)
2개 활동이상	12.78	(4.4)	11.66	(3.6)	12.33	(4.7)	16.17	(4.7)
사회적 신뢰 평균								
낮음	14.08	(4.1)	12.91	(3.2)	14.49	(4.7)	14.23	(3.9)
중간	12.12	(4.1)	11.67	(3.5)	11.29	(4.2)	14.24	(4.3)
높음	11.38	(4.3)	12.00	(4.6)	9.9	(3.4)	11.76	(4.6)
문화정체성								
낮음	12.39	(4.1)	12.47	(3.9)	11.92	(4.6)	12.80	(3.8)
높음	12.81	(4.5)	11.94	(4.1)	12.73	(4.8)	14.28	(4.5)

결과이다. 외국인 아내들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경향이 사회활동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보다 2개 이상 참석하는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출신국별로 구분하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국 아내와 베트남 아내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는 1개 활동을 할 때 보다는 2개 이상의 활동을 할 때 우울증상이 더 낮았다. 사회활동으로 인한 우울감소의 경향은 일본인 아내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신뢰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보다도 우울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수준에 따른 우울차이는 일본이나 베트남 아내들보다도 중국 아내들에게서 더 분명한 차이로 나타났다.

문화정체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높은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긴장과 내적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에서는 우울의 격차도 크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에서도 문화정체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우울 수준이 보다 오히려 낮아서,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응에 불리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앞에서 살펴본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련성이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출신국적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혼인이주 아내의 출신국적별로 변수들의 영향력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집단별로 나타나는 결정요인 구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고, 각 집단 내에서 의미있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나 변수들이 우울증에 반영되는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거주기간,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통제하면서 앞서 살펴본 관련 변수들의 효과와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5〉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별 회귀식은 다시 2개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모형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 2에서는 첫 번째 모델에 부가적으로 사회적 자원 특성들과 문화정체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적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가장 왼쪽 칼럼에 제시되어 있다. 왼쪽

칼럼의 모형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월평균 가계소득(b=-.61, p<.05), 결혼만족도(b=-1.06, p<.001)가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외국인 아내들이 우울을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출산(b=-1.64,p<.001)과 경제활동(b=-2.02, p<.001)은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분산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다른 주요 변수들이 통제된 이후에도 우울을 낮추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과 문화정체성을 부가적으로 투입하자([모형 2] 참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크게 증가한 반면, 출산여부와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계수값은 다소 감소하였다. 모형 2에서 사회적 신뢰(b=-.56, p<.001)와 문화정체성(b=.43, p<.001)의 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방향이며, 반대로 외국인 아내들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우울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 아내들의 국적별로 구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5 참조>). 먼저,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통제변수들과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소득과 결혼만족도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만 나타났다(b가계소득=-.81, b결혼만족도=-1.67, p<.001). 모형 2에서는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사회활동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다가, 모형 2에 이르러서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약하게나마 드러났다.

출산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이한 부분이다. 이는 결혼만족도나 소득 효과 그밖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되면서 사회적 역할관련 특성의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미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역할의 보상수준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하다는 결과는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인 아내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되는데, 이 결과만을 가지고 더 이상의 해석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중국 아내들만을 분석한 두 번째 칼럼을 보게 되면,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모델 1에 투입된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이 고려된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 변수들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자원과 문화정체성이 포함된 모델 2에서는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상대적 영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인 아내의 회귀식에서는 사회적 신뢰의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β=-.39, p<.001).

마지막으로 〈표 5〉의 가장 오른쪽 칼럼에 제시된 베트남 아내들의 회귀식에서는 연령, 출산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출산과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서 살펴본 중국 아내들의 경우와 그 방향성이 일치하였다.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린 아내보다 나이가 든 아내들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서는 사회적 역할 수행, 사회적 자원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베트남 아내들은 출산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기타 사회적 자원의 획득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한편, 베트남 아내의 회귀식의 모형 2를 보게 되면, 경제활동의 효과는 사라졌고, 연령과 출산, 사회활동과 문화정체성의 효과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회활동의 효과가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서 살펴본 전체 모델이나 일본인 아내에서 나타난 효과와는 방향성이 반대였다. 또한 다른 국적의 아내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문화정체성의 효과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전체모델에서 발견된 문화정체성의 효과와 동일하게 자국의 문화를 더 많이 지킬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방향이었다.

<표 5>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일본				중국				베트남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51	0.9	.61	.11 +	0.7	.01	.34	.05	.78	.09	.59	.07	.2.5	.26***	2.35	.24***
-.34	-0.7	-.17	-.03	.80	.10	1.06	.13 +	-.65	-.10	-.27	-.04	-.34	-.07	-.47	-.10
-.61	-.11***	-.53	-.09*	-.81	-.18***	-.74	-.16*	-.60	-.09	-.05	-.01	-.02	-.01	.11	.02
.01	0.2	.01	.01	.01	.03	.01	.08	.01	.06	.01	.01	.03	.13	.02	.08
-1.06	-.15***	-1.00	-.14***	-1.67	-.26***	-1.71	-.26***	-.67	-.08	-.21	-.02	-.56	-.08	-.49	-.07
-1.64	-.19***	-1.51	-.17***	-.67	-.06	-.35	-.03	-2.05	-.22***	-1.88	-.20***	-1.62	-.20**	-1.46	-.18**
-2.02	-.19***	-1.84	-.17***	-.94	-.10	-1.61	-.17*	-3.54	-.33***	-2.93	-.27***	-1.84	-.12*	-1.70	-.11
		-.03	-.01			-.76	-.25***			.33	-.07			.47	.14*
		-.56	-.20***			-.22	-.06			-1.30	-.39***			-.16	-.06
		.43	.11***			.11	.03			.14	.03			.58	.16*
.10		.13		.09		.13		.12		.27		.12		.15	
9.0***		9.3***		3.4***		3.7****		4.3***		6.9***		4.1***		4.1***	
524				185				160				176			

동여부는 더미변수이다. 출산여부는 자녀없음=0, 자녀있음=1로 , 경제활동여부는 직업없음=0, 직업있음=1로 분석하였다.
p<.01, ***p<.001

V. 토의 및 결론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혼인이주로 한국에 온 세 국가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모가 되고 직업을 갖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아내 524명에 대한 자료를 결과,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 아내들보다 더 우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적응수준이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도 취약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수행효과가 아내들의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응답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65.8%가 이미 출산을 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부모 및 직업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 12.2%는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하는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 점유 상황은 그들이 가족생활주기의 다양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아내로서의 신분을 넘어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미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응답자들의 우울 수준은 대략 1-2 가지의 우울증상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다고 보고한 증상은 피로감이었다. 출신국적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아내들은 일본이나 중국인 아내들보다도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을 보다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특히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 피로와 무기력감 그리고 희망없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

셋째, 부모 및 직업역할 수행이 외국인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출산과 경제활동 모두 우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역할의 수행이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로 이러한 각각의 역할 수행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 아내들은 결혼만족도와 소득의 효과가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보다 우세하였다. 그에비해, 중국인 아내는 출산과 경제활동 모두가 우울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아내의 분석에서는 출산과 부모역할 습득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로 그들의 적응에 전략적

으로 유리한 사회적 역할 수행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적 역할 습득과는 별도로 사회적 신뢰, 사회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원 특성 역시 외국인 아내의 우울증상을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신뢰감은 세 출신국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전체 모델에서 출산, 경제활동 수행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중국 아내들의 경우 사회적 신뢰의 상대적 영향력이 출산이나 경제활동에 버금갈 정도로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연구결과만을 가지고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중국인 아내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과 베트남 아내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사회적 신뢰의 효과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공간적 확장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두드러졌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그들의 공간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은 일본인 아내들의 우울감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응답자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아내들과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이들이 외국인 아내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 모임에 추가적으로 이들은 종교 활동에 열성적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인 아내의 경우에서 관찰되는 사회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부분적으로 종교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베트남 아내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 즉, 사회활동이 오히려 그들의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논의와 비교해 보더라도 정반대의 결과이다. 베트남 아내의 경우에서는 아직 언어가 미숙한 가운데 공간적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과 불안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벨랑제(Bèlanger, 2006)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방식의 차별, 빨리 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소망과 실제의 괴리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들의 정신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만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해석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사회활동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문화정체성과 우울의 관련성은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베트남 아내의 사례에서는 문화정체성이 강할수록 그들의 정신건강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인 아내나 중국인 아내의 사례에서는 문화정체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 연구의 자료에서 중국인 아내들은 조선족이 73%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인의 사례에서 언어나 생활습관에서 크게 이질감이나 문화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는 베트남 아내들보다도 언어나 생활습관에서 더 강한 정체성 성향을 나타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일본인으로서 갖는 문화정체성이 그들의 우울, 더 나아가서는 적응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에서 측정한 일본인들의 음식, 풍습, 문화, 그리고 언어사용이 한국사회에서 큰 이질감을 갖거나 내적 갈등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서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게 나타났다. 특히 최종모형에서 문화정체성과 부모역할은 나란히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기존의 사례연구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외국인 아내들의 민족성이나 문화적 이질감이 더 드러난다고 지적한 논의(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모역할과 문화정체성 이 두 요소가 서로 결부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부모역할의 수행이 이들 베트남 아내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이들의 적응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글을 끝맺기 전에 이 연구의 제한점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으로 오는 혼인이주 여성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점이 분명히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일본, 중국,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200명이라는 제한적인 수만을 표집하였다. 또한, 일본인 아내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표집된 사례의 상당수가 통일교도 이었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 이 자료가 특정 국적내서도 대표성을 갖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자료가 가진 중요한 한계인 동시에, 이 새로운 인구집단을 파악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혼인이주여성의 모집단이 어떠한지, 국적별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적별 비교까지 가능한 출신국별 모집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입국시기와 가족생활주기가 매우 다른 세 국적의 아내들을 하나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과 경제활동이라는 역할의 구조적 특성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역할의 질과 그 건강효과를 살펴보지 못한 점은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역할수행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성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혼인이주여성의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이 외국인 아내의 적응부분에서 간과해 온 부모역할, 직업역할의 효과를 실증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들 혼인이주 여성의 우울과 그 결정요인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로 적응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그들이 한국에 오게 된 배경, 인적자본, 사회문화적인 불평등과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차이점들은 개별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혼인이주"라는 생애경험으로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부모 및 직업역할수행과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2-80.

권복순 ·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정체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한국인구학≫ 29(1): 24-56.

김두섭 · 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김두섭 · 김현수 · 차승은 (2008) "아시아 여성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와 정착과정: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을 중심으로." 포스코 청암재단 아시아 펠로쉽 연구보고서.

김민정 · 유명기 · 이혜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59-193.

김석란 (2007)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동기에 관한 연구 ” ≪일어교육≫ 42: 241-259.

김숙자 (1998) “한국 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섭외혼인 실태와 그 대책.” ≪가족법 연구≫ 12: 93-197.

김연희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겨울호): 117-144.

김오남 (2006a)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가족과 문화≫ 18(3): 63-106.

김오남 (2006b)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박주희 · 정진경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회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2(4): 395-432.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도자료.

설동훈 · 김윤태 · 김현미 · 윤홍식 · 이혜경 · 임경택 · 정기선 · 주영수 ·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 · 윤홍식 (2005)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양순미 (2006) “농촌 가족의 변화 ;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80.

왕한석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문제와 해결방안.” ≪새국어생활≫ 16(1): 33-50.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한국인구학≫ 28(1): 73-106.

전홍주 · 배소영 · 곽금주 (2008) “결혼이주 여성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과제: 다문화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지원.”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정현주 (2007) “공간의 덫에 갇힌 그녀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53-68.

조영달 (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최연실・권용혁・김태성・우실하 (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으로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통계청 (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인구분석과 보도자료.

통계청 (2008)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통계청 (2007) 2006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한건수(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한경혜・이정화・Ryff・Nadine・옥선화 (2003) “한국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2(2): 209-226.

한경혜・김주현・김경민 (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155-171.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정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정책개발원 내부자료.

Barnnet, Rosalind C., Lois Biener, and Grace K. Baruch (1987) *Gender and Stress*. New York:The Free Press

Belanger, Daniele (2007) “The House and the Classroom: Vietnamese Immigrant Spouses in South Korea and Taiwan.” *Population and Society* 3(1): 39-59.

Berry, J. W.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Ethnic in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P 223-239), edited by Leo Driedger, Toronto: Coop, Clark, Pitman.

Curran, Sara, Filiz Garip, Chang Y. Chung, and Kanchana Tangchonlatip (2005) “Gendered Migrant Social Capital: Evidence from Thailand.” *Social Forces* 84(1): 225-255.

DiMaggio, P. and H. Louch (1998) “Socially Embedded Consumer Transactions: For What Kinds of Purchases Do People Most Often Us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619-637.

Gold, Thomas, Douglas Guthrie, and David Wank (2002) *Social Connections*

in China: Institutions, Cultures and the Changing Nature of Guanxi.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anovetter, Mark (1974) *Getting a Job*.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ogg, M.A. and D. Adams (1990) *Social Identification: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ouse, J.S., K.R Landis, and Debroa Umberson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50.

Kim, Doo-Sub and Myoung-Jin Lee (2007) "Spouse Dissimilarity and Marital Instability." Presented at the PAK-IPAR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in Asia. Seoul, Korea. September 13-14.

Kim, Cheoung Seok (2007) "Micro-Level Analysis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Men in Korea and Women from Four Major Countries." Presented at the PAK-IPAR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in Asia. Seoul, Korea. September 13-14.

Lin, Na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87.

Massey, Douglass. S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4): 699-751.

Massey, Douglass. S, and Rene M. Zenteno (1999) "The Dynamics of Mass Migr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6(9): 5328-5335.

Piper, Nicola (2003) "Wife or Worker? Worker or Wife? Marriage and Cross-Border Migration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457-469.

Piper, Nicola and Mina Roce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Portes, Alejandro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Stoloff, J. A., J. L. Glanville, and E. J. Bienenstock (1999)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The Role of Social Networks."

Social Networks 21: 91-108.

Tajfel, H, and J Turner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 Austin and S. Woechel, Chigago: Nelson-Hall Publisher.

Umberson, Debora (1987) "Family Status and Health Behaviors: Social Control as a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305-319.

Williams, Kristi (2004) "Transition to Widowhood and the Social Regulation of Health: Consequences for Health and Health-Risk Behavior."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 S343-S349.

[2008. 8. 10 접수 | 2008. 12. 3 채택]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Seung-Eun Cha · Doo-Sub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level of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who are residing in Korean society. Special focus was taken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origin of nationality. Guided by the role theory, we analyzed the effect of parental role and work role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Also we considered the social resources, ethnic characteristic that are well-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role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data came from the sample of 524 foreign wives case (Japanese 35%, Chinese 31%, Vietnamese 34%). The result show us that depression level is different by origin of nationality of foreign wives: Vietnamese wives were more depressed compare to Japanese or Chinese wives. The effects of two social role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even if the social resources and ethnicity are considered in the model. However, the strength of the effect of social roles were different by one another: having a job was especially effective to decrease the Chinese wife's depression level, while for the Vietnamese wives, parental role was essential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In additi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depression were differ by the nationalities of wiv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of foreign wife may be varied by the origin of nationality.

Key Words: marriage migration, parental role, work role, depression, ethnic differences, social determinants